



## MLSAAF의 PI 최 교수의 인사말

친애하는 MLSAAF 참가자 여러분,

우선 제 4차 종적 연구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팀은 4차 조사에 대한 답변을 수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몇 달간 특히 6월 말에 저희로부터 여러차례 메시지를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 젊은이들의 경험을 더 잘 이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저희 연구를 최근의 사회정치적 풍토를 다시 생각해보고, 함께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에 힘입어 저희 팀은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에 대한 몇 가지 중요점을 발견했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경험을 더욱 잘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중 일부는 본 뉴스레터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설문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설문조사를 완료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 4차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연구를 매개로한 여러분들의 경험 공유와 이를 통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목소리 증폭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매우 부족합니다. "모범 소수자" 신화에 따르면, 수많은 아시아계 미국인은 아시아인이라는 하나의 인종으로 묶어서 설명되며,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는 인종으로 간주되곤 합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어려움 없이 생활을 해내는 부분도 있지만, 수많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모두 설명하기에는, 아시아계 미국인들 내에서도 각 인종이 겪는 경험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고충이 존재합니다. 연구를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본 연구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전례 없는 요즘같은 기간에 항상 안녕하시기 바라며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진심을 담아,  
최윤선 박사, MSSW 드림

## MLSAAF Wave 4는 COVID-19의 영향에 초점을 맞춥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Wave 4 데이터 수집은 Russell Sage Foundation이 연구비를 지원하였고,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아시아계 미국 젊은이들이 겪은 인종적 경험과 시민 행동(예: 투표, 정치 참여) 및 COVID-19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COVID-19 유행 이후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인종적 적대감에 시달려왔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인종 차별의 영향을 측정하고자 하며, 특히 젊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이러한 경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MLSAAF 구성원 소개!



## 조아연을 만나보세요

아연은 2021 MLSAAF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Covid-19 이후, 아시아계 미국인 혐오 범죄의 증가로 그녀는 인종과 관련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경험과 그 경험이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하는데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다양한 경험을 기록하고, 아시아계 미국인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는 연구 목적에 공감합니다. 참고로 그녀는 참가자들과 접촉하지 않는 때에 동물의 숲을 하며 여가시간을 즐깁니다.



## Bryan Gu를 만나보세요

Bryan은 2021 MLSAAF 프로젝트의 학부 연구 조교입니다. 그는 MLSAAF와의 작업을 통해 젊은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환경 및 문화적 요인을 더 잘 이해하기를 희망하며, 궁극적으로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알아내고자 합니다.



## 추은경 선생님을 만나보세요

추은경 선생님은 2014년부터 MLSAAF 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Waves 1 & 2에서 인터뷰어로 활동했으며, 과거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많은 부모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MLSAAF의 역사를 파악하고 있어, 새로 합류하는 스태프와 연구 참가자를 이어주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MLSAAF팀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팀원입니다.



## Michelle Gan을 만나보세요

Michelle Gan은 시카고대 재학 중 2016년 MLSAAF에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공공정책학을 주로 공부하면서, 세부전공으로 국제개발을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졸업 후 국가 및 지방 정부 기관의 공공 부문 컨설턴트로 일했습니다. 또한 Michelle은 경제, 인종적 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풀뿌리 운동을 조직 및 전개하는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아직까지 제 4차 설문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참가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설문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 정혜민을 만나보세요

혜민은 2021년부터 MLSAAF에서 연구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시카고 대학의 해리스 공공정책학 석사를 2020년에 졸업했습니다. 최근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로서 그녀는 미국 내 젊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합한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 이수영을 만나보세요

수영은 2018년부터 MLSAAF에서 연구 조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시카고 대학의 사회복지행정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이며, 젊은 아시아계 미국인들과 관련된 스토리텔링, 정체성, 비판 의식, 그리고 웰빙 등과 관련된 주제들의 교차 지점을 찾으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 4차 조사 업데이트 내용

최근의 연구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2014년 1차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15세였습니다. 2021년 현재, 4차 연구 기준 본 연구의 참가자 평균 연령은 21세였고, 상당수의 참가자들은 이미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어서 고등교육을 받고 있고, 그 중 상당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1세이며,



약 95%의 참가자는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82%가 고등교육을  
받고 있으며,



44%는 연인과 교제  
중이고,



62%는 고용상태이며, 70%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MLSAAF 참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추세가 발견됐고, 이러한 추세는 그 이후로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살성 사고는 2014년 9.67%(1차)에서 2018년 16%(3차)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2021년(4차 연구) 자료에서는 참여자의 17% 이상이 자살성 사고를 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에 대한 중요한 연구 결과

### 고유한 문화들이 혼합된 결정체:

MLSAAF 연구는 필리핀계 미국인 가정과 한국계 미국인 가정이 각각 전통적 요소를 정형화된 서양식도 아시아식도 아닌 독특한 과정으로 변형시키면서 주류 문화에 동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 집단 모두 상당한 문화 동화의 조짐에도 불구하고, 가족주의(웃어른에 대한 존중, 가족의 의무, 가족을 위한 희생)와 같은 핵심적인 전통문화 가치가 지속되었습니다.

필리핀계 미국인 가정은 한국계 미국인 가정보다 더 강한 문화(예: 영어를 더 많이 말함) 동화 현상을 보여주면서도, 가족주의의 전통적인 측면을 더 많이 표현하고 자녀들을 대상으로 가족주의적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가정의 경우, 이민 1세대 출신 부모들은 가족주의의 핵심가치를 눈에 띄게 중시했고, 2세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설령 부모가 그런 가치를 노골적으로 심어주지 않더라도 가족주의 핵심가치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국의 집단주의 문화 특성이 매우 다양하며, 서구의 일반적인 양육 이론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양육 관행에 반드시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또한 우리는 일부 전통적인 양육 관행(예: 심리적 통제, 자녀의 성과에 기초한 부모의 자아 가치, 성별 규범)이 더 높은 수준의 부모-자녀 간 갈등 및 정신적 고통 예측에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부모들의 이러한 양육 관행은 수정되도록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2021년 4차 설문조사에 얼른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4차 연구 데이터 수집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제 4차 연구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얼른 설문조사를 완료하시고 \$50 상품권도 받으십시오. 설문에 참여하시려면 우측에 제공된 QR 코드를 스캔 하거나 [mlsaaf@crownschool.uchicago.edu](mailto:mlsaaf@crownschool.uchicago.edu)으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설문조사 링크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 링크를 통해 설문을 다시 열고 설문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설문 항목의 95% 이상을 응답해주시면, \$100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회에 자동으로 참여하게 해드립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총 23개의 \$100 기프트 카드를 추첨을 통해 나눠드렸고, 최종 추첨에서는 **총 9명의 당첨자**를 추가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저희팀은 최종적으로 **74%의 설문 참여율(즉, 583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기준 설문 참여율은 **62%**입니다. **최종 목표인 74% 설문 참여율을 달성하**

**려면 89명 이상의 참가자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저희팀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 4차 연구에 참여하여 도와주십시오!**

최신 이벤트 및 기타 관련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www.mlsaaf.org](http://www.mlsaaf.org) 방문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따뜻한 안부를 전하며,  
MLSAAF 팀 드림

	수집된 설문
한국계 참가자	289건
필리핀계 참가자	205건
7/31 기준 수집 완료 설문 합계	494건

8/31 까지 74%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려면 89명 이상의 추가 참가자가 필요합니다.